

## 하나님을 즐거워 하라

1. 사랑의 공동체를 이루는 교회
2. 예수님을 전염시키는 교회
3. 청소년 사역에 집중하는 교회
4. 주님의교회들을 번식하는 교회

통 권 \_ 제 195호

발행처 \_ 주님의교회 홍보출판부

발행일 \_ 2006년 12월 03일

# 함즐함울

www.pcltv.org

## “우리 가운데 오시는 주님” 출(25:8) 내일부터, 대림절 특별새벽기도회



주님의교회에 설치된 크리스마스 트리

지난 목요일, 서울에 눈이 내렸다. 많은 양은 아니고 곧 비로 바뀌기는 했지만 이미 겨울이 다가왔음을 알려주기에 충분했다. 겨울이 오는 소식은 우리로 하여금 한 해를 잘 마무리하고 또 다른 한 해를 계획하라고 독촉하기도 한다. 2006년도 이제 한 달이라는 시간 밖에 남지 않았다. 해마다 이 시기가 오면 연말연시의 각종모임과 행사에 몸이 분주해지고 그것에 온통 마음을 빼앗기곤 한다. 백화점과 길거리의 네온사인 등 온 도시가 성탄의 기쁨을 누리라고 말하는 것 같지만 정작 아기예수님께서 편히 찾아오실 구유는 많아 보이지 않는다.

올해도 변함없이 대림절 특별 새벽기도회를 갖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아기 예수님의 이 땅에 오심을 기뻐하고 다시 오실 그 완성의 날을 위해 나 스스로를 하나님 앞에 준비하는 시간으로 새벽을 깨우게 될 것이다. 아침마다 드려지는 기도는 내 마음속에 예수님을 모실 가장 겸손한 말구유를 만들어 가게 할 것이다.

12월 4일, 내일부터 5일간 5시 30분 대에 배실에서 대림절 특별새벽기도회가 있다. 감리교신학교 왕대일교수가 말씀을 전하는 이번 기도회는 “우리 가운데 오시는 주님”(출25:8)이라는 주제로 드려지게 된다. 한해를 마무리하고 새해를 준비하며 성탄의 참 의미를 되새기고자 하는 많은 성도들의 참여를 기대한다.

## 길가에교회 창립1주년 기념예배



2005년 12월 11일 경기도 남양주시 도농동에 위치한 동화중고등학교에서 길가에교회가 시작되었다. 길가에교회는 주님의교회가 교회 비전에 따라 번식한 첫 번째 교회로 이인호목사와 40

여명의 성도들이 함께 참여했다. 계속적인 성장과 은혜의 소식을 전한 길가에교회는 창립1주년을 맞아 함즐함울을 통해 주님의교회 성도들을 창립예배에 초대했다. (3면 특집)

## 30CUP 특강 “기독교를 캐스팅한 영화”



영화들 속에서 사용된 기독교적 메타포(은유)들을 살펴보고 현재 영화향행의 중요한 코드인 폭력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지에 대해 함께 고민해 보려고 한다.

일 시 : 12월 3일 오후 1시 15분

장 소 : 제3집회실(1층)

강 사 : 정민아 (현 동국대 등 영화학 강사/전 EBS 프로그래머, [씨네21] 뉴욕 통신원)

1. 영화 이미지로서의 기독교
2. 신의 암호가 갖든 영화
3. 이미지와 폭력

|                |    |
|----------------|----|
| 유소년축구 종강       | 2면 |
| 길가에교회 특집       | 3면 |
| 구역모임 5-14, 8-4 | 4면 |

### 로 템 나 무

## 크리스마스 트리의 유래 I CHRISTMAS TREES



크리스마스 트리가 천 세계적인 크리스마스의 상징물이 된 것은 불과 2세기밖에 되지 않았지만 그 기원은 천년 이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7세기경에 영국의 수도승 St. Boniface는 복음전파를 위해 유럽을 순례하며 많은 교회를 세웠다. 어느 날 그는 커다란 참나무 주위에 사람들이 몰려있는 것을 보고 그들에게 다가가 보니 사람들이 신에게 바칠 제사를 위해 한 어린아이를 붙들고 있었다. 그 장면을 본 St. Boniface는 멈추라고 소리쳤으나 사람들은 듣지 않았다. 그는 마침내 앞으로 나아가 나무의 몸통을 주먹으로 쳤다. 그때 사람들은 그 나무가 떨어지면서 땅으로 떨어지는 것을 보았고 먼지가 가라 앉은 후에는 바로 그 자리에 작은 전나무가 있는 것을 보게 되었다. St. Boniface는 사람들에게 그 나무를 가리키며 이야기 했다. 겨울에도 지속되는 전나무의 푸르름은 그리스도께서 주신 것이라고 말하며 그 나무의 삼각형 모양은 삼위일체, 즉 성부 성자 성령을 상징한다고 이야기 했다. 이 이야기를 들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게 되었다.

500년 후에 이 이야기는 전설이 되어 프랑스와 독일 등지의 사람들은 전나무를 기독교의 상징으로 천정에 매달아 두었다. 이것이 크리스마스 트리 유래의 시작이다.

편집부, Traditions of Christmas  
(ACE COLLINS, ZONDERVAN) 중에서

### ※사진촬영※

2007 교회요람 제작을 위한 사진 촬영이 아래와 같이 진행됩니다. 성도여러분의 적극적인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시 간: 주일 오전 8시 30분~오후 1시 30분  
장 소: 1층 소예배실 왼쪽입구

예배의 현장

# “하나님의 약속과 사명성취”

지난 29일 수요일예배에서는 윤은성 목사가 창세기 50장 22절~26절로 말씀을 전했다. 성경은 요셉이 임종을 맞이하여 자손들에게 유언을 남기는 내용을 전하고 있다. 윤 목사는 먼저 선교사 언더우드와 지은 시의 일부인 ‘주여 지금은 아무 것도 보이지 않습니다... 제 믿음을 지켜주소서’를 소개했다. 최초로 한국 땅을 밟은 선교사인 언더우드와 ‘아브라함-이삭-야곱-요셉’의 4대에 걸쳐 아직 이뤄지지 않은 하나님의 약속을 후대에 남기며 믿음의 고백을 하고 있는 요셉의 상황은 크게 다르지 않다고 윤목사는 설명했다. 이는 이성과 합리성의 시대인 21세기를 살아가는 우리도 공감할 수 있는 부분이다.

하나님은 오직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시간대에 맞춰 약속을 성취하신다. 요셉 임종시에 70여명이었던 일가는 출애굽을 하며 장정만 70만 명에 이르는 민족으로 성장

했다. 여호수아 21장 45절은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족속에게 말씀하신 선한 말씀이 하나도 남음이 없이 다 응하였더라’라고 전한다. 고통과 시련의 역사 속에서 하나님은 계획을 운데 차근차근 일하셨다.

한국교회가 점차 쇠퇴하고 기독교 인구수가 감소해간다는 통계수치는 분명 우리 눈에 보이는 아픈 현실이다. 그러나 선교사 언더우드로부터 시작된 한국 선교의 역사는 불과 100년이 채 지나지 않고서도 커다란 결실을 맺었다. 지금도 많은 한국인들은 성경을 한번도 접하지 못했던 많은 민족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있다. 하나님의 계획은 아직 현재 진행형이다.

윤은성 목사는 하나님은 많은 사람보다도 ‘헌신된 한 사람’을 통해서 사명을 성취하신다며 ‘눈에 보이는 현실’과 ‘하나님의 계획’의 차이를 강조했다.

오늘 기도



주여 이제가 일하는 저손에서 한 손으로는 일을, 한 손으로는 목자를 잡고, 성령을 건축하게 하소서.

성을 건축하는 자와 짐을 나르는 자는 다 기쁘한 마음으로 일을 하여 한 손에는 병기를 잡았는데,.... 나나 내 형제들이나 종자들이나 나를 따라 파수하는 사람들이나 우리가 다 우리의 옷을 벗지 아니하였 으며 물을 길으러 갈데에도 기쁘한 병기를 잡았느니라 (느4:17-23)

## 기도 어머니 학교 “우리로 기도하게 하셨습니다!”

양육클래스 [기도 어머니학교]는 지난 11월 7일 중매배설에서 영화 [6월의 일기]를 상영했다.



학교폭력, 집단따돌림 그 결과로 이어지는 살인과 복수... 영화가 끝났을 때 누구도 일어나지 못했다. 그 누구도 입을 열어 말하지 못했다. 잠시 후 거의 모두의 입에서 긴 숨이 흘러 나왔다. 영화 속 그

들 모두가 피해자로 느껴지는 것은 나만의 감상일까? 정신적, 육체적으로 학대를 당하는 아이는 당연히 피해자이다. 친구를 집단으로 괴롭히는 아이들은 가해자이다. 그런데 무엇이 그들로 하여금 친구를 괴롭혀야만 하는 아픔을 가지게 했을까? 그런 아픔을 지닌 아이들 역시 피해자이다. 냉소하며 즐기는 방관자들, 두려워서 친구를 돕지 못하는 방관자들, 그들 역시 피해자이다. 아들의 고통에 아랑곳없이 비수 같은 말을 퍼부어대는 엄마 그녀 역시 피해자이다. 행여 영화 속의 아이들의 아픔이 내 자녀의 아픔은 아니었

을까? 그 엄마의 모습이 내 모습은 아니었을까? 아마도 어느 만큼은 닮아 있으려나 생각되어 가슴이 저려왔다. 그리고 학원선교부에서 헌신하고 있는 기도어머니들의 품안에 보듬어져 있는 정신학원 학생들이 떠올랐다.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십시오! 저절로 기도가 나왔습니다.’

주님! 불확실한 미래에 대한 두려움과 열기 왕성한 육체의 욕구를 절제하지 못하는 청소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들을 우리의 품에 안겨 주었습니다. 우리로 그들을 위로하고 위해 기도하라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주님, 아시지요. 두렵고 떨립니다. 우리는 너무도 연약하여 내 자녀조차 상처투성이가 만들었던 어머니이기 때문입니다. 주님, 도와주십시오. 주님의 은혜와 긍휼과 사랑으로 우리 품에 안겨주신 정신학원의 딸들을 위로하며 격려하고 소망과 사랑을 깨우쳐 믿음에 이르게 인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이라는 미명으로 상처 주었던 우리의 자녀들이 있음을 아시는 주님! 우리의 자녀들도 도와주십시오. 어머니들이 냈던 상처를 주님의 능력으로 치유하시고 회복시켜주십시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창성(권사, 학원선교부팀장)

## 유소년축구팀 2학기 종강 모임

유소년 축구팀은 지난 주일(11월 26일)로 올해의 훈련을 마쳤다. 종강모임에 참석한 홍민기목사는 지금까지 열심히 축구를 배운 학생들을 격려하고 직접 개근상을 나누어 주었다. 올해 유소년축구팀은 168명의 어린이와 청소년들이 참여해 유치부와 초등부는 1시 30분부터 3시까지, 중등부는 11시부터 12시 30분까지 훈련에 참여했다. 유치부는 주로 놀이로 어린이들이 축구와 친숙하게 되도록 돕고, 중등부는 축구의 기술적인 면을 본격적으로 배우고 있다. 이용수안수집사(세종대교수, KBS축구해설위원)와 세종대체육학과 학생들이 지도하는 유소년축구부팀은 지난 학기에 서울체육고등학교에서 일본인학교 초등생들과 두 번의 친선경기를 갖고 시험에서 우승했다.

유소년 축구팀은 내년 3월에 다시 개강하게 된다.



나의신앙이/기

## 존 스토트, [기독교의 기본 진리]를 읽고

몇 해 전 목사님께서 심방을 오셨다. 하나님 살아계심을 믿느냐는 목사님의 질문에 “힘이 없지 않느냐고, 선택의 여지가 없지 않느냐고” 대답했다. 그랬다. 그랬었다 내가, 그 무엇인가 거대한 중압감에 눌려 숨쉬기가 거북하니 그렇게 살아왔다. 그 무엇인가를 궁금해 하지도 않은 채, 왜 그 안으로는 들어가 보려 하지도 않았는지...

바람과 해와의 싸움이 생각난다. 나의 두 손엔 이제까지 쏘고 닦고 공들여온 나의 자아를 꼬옥 부여안고선 그 외투가 바람에 헝클어져 날아갈까 불안해하며, 따라오는 따듯한 빛엔 벗기를 거부하며 조급할 수밖에 없는 걸음을 걸어왔다. 제법

모양새를 갖춘 그 외투를 빼앗기지 않으려 나는 젖먹는 힘까지 다하고 있었다. 나의 길은 바람에 체이고 빛에 쫓기는 인생만 같았다. 내가 빗장을 잠그고 구멍으로 바라본 따스한 햇살의 주님은 나의 상한 맘을 감싸주는 훈훈한 온기로 다가오셨다. 주님은 바람하고는 달랐다. 주님은 한없는 사랑과 인내심으로 내 손에 쥐가 나서 더 이상 힘을 줄 수 없는 적절한 타이밍에 내 손을 놓게 하셨다. 주님은 내 스스로 문빔장을 벗기게 하셨다. 기다리고 또 기다려 주셨던 것이다. 주님은 나의 외투를 받아 드시고 따듯한 목소리로 설명해 주셨다. 주님이 왜 이 땅에 오셨는지, 왜 죽으셔야했

고, 또 부활하셨는지 그리고, 나를 얼마나 많이 사랑하시는지...

“우리가 지금은 거울로 보는 것같이 희미하나 그 때에는 얼굴과 얼굴을 대하여 볼 것이요 지금은 내가 부분적으로 아나 그 때에는 주님께서 나를 아신 것 같이 내가 온전히 알리라.”(고전13:12)

더 이상 가슴 아파 하지도 슬퍼하지도 않는다. 내 가슴이 어렴풋 감지함에도 내 가슴은 뛰고, 내 목은 파-악 메이고 내 눈시울은 뜨거워진다. 나는 고백한다. “주는 나의 주님이시요, 나의 하나님입니다.” 아멘

정재용(집사 7-8)

# 창립 1 주년을 맞이하는 길가에교회



|   |   |   |   |
|---|---|---|---|
| ① | ② | ③ | ④ |
| ⑪ | ⑫ | ⑬ | ⑤ |
| ⑩ | ⑨ | ⑧ | ⑦ |
| ⑭ |   |   |   |

① 파송예배 - 2005년 12월 11일 창립예배 전 주님의교회에서 파송식을 가졌다. ② 2006년 사순절 특별새벽기도회 - 사순절기간 '속사람 클리닉'이라는 주제로 특별새벽기도회를 가졌다. ③ 성찬예식 - 예수님의 피와 살을 나누면서 서로에게 위탁하며, 사랑을 고백하고 예수님의 제자로서의 삶을 살기로 헌신하는 시간은 함께 공동체를 시작한 믿음의 가족들에게 특별한 의미를 가져다 주었다. ④ 산행 - 산행 후 내려와서 노래자랑을 했다. 아내가 노래할 때 남편이 옆에서 응원하며 힘이 되어주고 있다. ⑤ 초청의 밤 - 교회 주변에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이웃을 초대해 복음을 전하는 잔치날이었다. 성도들은 한 달 동안 기도하며 이 행사를 준비했고 아름다운 전도의 결실을 맺었다. ⑥ 2006 여름수련회 - 어린이이에서부터 어른에 이르기까지 수련회에 참여했다. 성도들은 수련회를 통해 하나님께서 길가에교회를 위해 베풀어 놓으신 역사를 보았다. ⑦ 새가족환영회 - 5주 동안의 새가족반을 마치고 교회에 등록한 새가족들과 함께 신앙 공동체로 불러주신 것에 대해 감사하고 환영하는 시간을 가졌다. ⑧ 군부대방문 - 군부대를 방문해서 장병들과 함께 예배를 드리고 그들을 위로했다. ⑨ 시와 음악의 만남 - '마음 모아' 찬양대의 신앙의 고백과 하나님을 향한 아름다운 찬양을 들었다. ⑩ 길가에 장터(장터를 열기 전에 함께 기도하는 모습)-비자회를 위해 성도들은 즐거움과 기쁨으로 성졌다. 장터에서 나온 수익금 전액은 지역의 소외된 이웃에게 전달되었던다. ⑪ 추수감사절 - 하나님께서 주신 추수의 열매들로 인해 감사를 드리며 예배하고 있다. ⑫ 세례식 - 세례에 참여한 사람들은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아남을 고백했고 신앙공동체의 일원이 되었다. ⑬ 예수새내기 - 예수님을 모르는 청소년들을 초대해서 함께 식사하며 교인을 나누고 복음을 전했다. ⑭ 초등학교를 위한 문화센터 - '화가가 되어요', '예쁜 글씨 쓰기', '즐거운 영어교실', '검도' 등 지역 어린이들을 위해 다양한 문화 강좌를 열고 있다.

## 인 사 의 글

### “창립 1주년, 우리의 가슴은 뛰고 있습니다!”

소예배실에 모여 교회개척을 위한 기도모임을 가진 때가 엇그제 같은데 벌써 1년이 되었습니다. 그 때만 해도 누가 감지, 앞으로 어떻게 사역이 진행될지 드러난 것이 거의 없었습니다. 모든 것이 희미하게 보였지만 하나님은 분명한 그림을 가지고 우리를 인도하셨습니다. 우리는 그저 그분만을 기대하며 바라보면서 한 걸음 한 걸음씩 앞으로 나아갔을 뿐입니다. 매순간마다 우리가 확신한 바는, 길가에교회는 하나님께서 계획하고 시작하신 교회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분이 시작하셨으니 그분이 또한 이루어가시리라는 사실에 그 어떤 도전도 두렵지 않았습니다. 어린이를 포함하여 40여명으로 출발한 것이 지금은 120여명이 되었으니, 수적으로만 보아도 3배의 부흥을 이루게 하셨습니다.

작은 교회가 맡겨주신 많은 일들을 감당하기 위해 일인다역을 감당해야하기도 하지만 모두가 기쁨으로 참여하고 있습니다. 몇 차례 그룹별 모임을 통해 주님의교회와 맥을 같이 하는 비전 선언문을 다음과 같이 만들어 보았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예수사랑으로 하나 되어 그 사랑으로 이웃을 섬기며 예수심장을 품은 지도자들을 세워 하나님나라를 이루기 원하십니다.”

창립1주년을 맞이하면서 우리의 가슴은 뛰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비전을 구체적으로 더욱 알차게 이뤄 가시는 것을 기대하기 때문입니다. 길가에교회를 낳은 주님의교회의 뜨거운 사랑과 기도의 지원이 없다면 이런 결과가 어떻게 가능했겠습니까? 계속해서 여러분의 사랑과 긍지가 되도록, 나아가 하나님의 영광을 널리 드러내도록 최선을 다하며 겸손히 섬기겠습니다.

주님의교회에 “국수”가 있다면 길가에교회에는 “국밥”이 있습니다. 반찬은 김치 하나인데 벌써 맛 소문이 자자합니다. 오는 12월 10일(주일) 오후2시 길가에교회창립1주년 기념예배에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12시 50분까지 미리오시면 국밥 한 그릇 따끈하게 준비해 놓겠습니다.

이인호(길가에교회 담임목사)

### “인도하신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주님의교회가 첫번째 번식시킨 길가에교회가 창립 1주년을 맞이했습니다. 교회의 팽창이 아닌 번식을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기로 한 주님의교회 비전에 따라 2005년 7월에 경기도 남양주시 도농동 소재 동화학원안에 길가에교회(담임목사 이인호)를 설립기로 학교와 협약을 맺었습니다. 그 후, “생육하고 번성하라”는 창세기1장28절의 말씀으로 12차례의 번식 기도회를 드렸습니다. 2005년 12월11일 3부 예배 30여명의 교우를 파송하는 파송예배를 뜨겁게 드린 후 오후5시에 동화학원 내 여호수아홀에서 창립예배를 드렸습니다. 기쁨과 기대 속에서 탄생된 길가에교회는 2006년 5월18일에 대한예수교 장로회 평양노회에 등록된 독립된 교회로서 하나님이 주신 비전을 구체적으로 실천해 나가는 미래지향적인 교회가 되어가고 있습니다. 비록 짧은 기간이었지만 이웃초청잔치, 이웃사랑나눔 바자회, 자연보호 환경가꾸기, 동화학교 신입생 새내기 초청잔치, 새가족 환영회 등 다양한 교회행사를 통하여 구리 및 남양주시 지역주민에게 그리스도의 복음과 사랑을 전하는데 온 교우가 헌신적 수고를 아끼지 않았습니다. 이제 길가에교회는 개척교회의 이미지를 탈피하고 기성교회와 지역사회에 새로운 교회상을 제시하는 선도적인 교회로 성장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사랑하시고 인도하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며, 특별히 성원해 주신 주님의교회 교우님들께도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새해에는 보다 겸손히 주의 사명을 지켜나감, 주의 사역을 이루어 나아갈 것을 다짐합니다. 감사합니다.

한득현(길가에교회 장로)

“창립 1주년기념 축하예배에  
주님의교회 교우님들을 초대합니다.”

2006년 12월 10일(주일)  
오후 2시 길가에교회  
(지하철 도농역앞 동화중고내)  
TEL: 031-552-2274  
특별순서: 각종 축하행사

Misson 함글함글, 표준어사용 시리즈

“우리가 표준말의 희망입니다.”

만화가게/만화가게?  
터주대감/터줏대감?



만화가게/만화가게, 터줏대감/터줏대감. 어떤 말이 맞춤법에 맞는 것일까요? 정답은 '만화가게'와 '터줏대감'입니다. 길거리에서 쉽게 볼 수 있는 “만화가게” 간판들은 모두 틀린 표기입니다. 한글 맞춤법에서는 사잇소리 현상이 나타났을 때 ‘ㅅ’을 받침으로 적어 주며 이를 사이시옷 이라고 합니다. ①순우리말 또는 순우리말과 한자어로 된 합성이 가운데 앞말이 모음으로 끝나거나 ②뒷말의 첫소리가 된소리로 나가거나 ③뒷말의 첫소리 ‘ㄴ, ㄹ’ 앞에서 ‘ㄴ’ 소리가 덧나거나 ④뒷말의 첫소리모음 앞에서 ‘ㄹ’ 소리가 덧나는 것 따위에 받치어 적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아랫방’, ‘아랫니’, ‘나뭇잎’ 등이 있습니다.

교회생활 이모저모

봉사사역본부 큰 모임

봉사사역본부 큰 모임이 지난 26일 지하 소식당에서 있었다. 봉사사역본부 이호 목사는 로마서 15장 22절-29절 말씀을 통해 ‘바울은 축복의 전달자로 살기를 원했다’ 전하며 교회를 섬기는 것은 하나님이 주신 힘이자 기회이며, 이를 즐겁고 감사하게 받아들이자며 봉사자들을 격려했다. 이어서 차량부, 주방부, 도서사역팀, 영상팀, 설만한 물가, 결혼예식팀, 경조사팀, 홍보출판팀, 함글함글 등 많은 봉사팀들이 각자의 사역팀원들을 소개하고 식사를 함께 했다.

크리스마스 트리 설치



지난 주간 1층 중앙로비를 비롯 교회 곳곳에 크리스마스트리가 설치되었다. 특별히 3층 초등부실 트리는 초등부어린이들이 자신들이 직접 쓴 편지로 장식한 것이다. 소원을 담은 편지로 장식된 트리는 성탄을 기다리는 어린이들의 마음을 엿볼 수 있게 한다.

사진은 5층 도서실의 크리스마스 장식과 트리



환경교실 마지막 강좌 녹색 에너지로 녹색 교회를 꿈꾸다!



우리는 요즘 에너지 위기에 직면해 있다. 에너지 사용에 따른 대기 오염으로 건강이 위협 받고 자연이 파괴되며 이로 인해 사회적 비용이 늘어나고 있다. 증가하는 이산

하나님은 세상을 창조하시던 첫째날 ‘빛’을 만드셨다. 그 빛은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생활 에너지이다.

화탄소는 지구 온난화를 야기시키고 지구표면 온도와 해수면을 상승시키고 있다. 홍수, 가뭄, 폭풍 등 기상재해와 사막화, 생태계 파괴, 전염병 창궐, 농업과 어업의 파괴 등 여러 문제가 가속화될 전망이다. 이를 방지하기 위해 화석 원료(석유, 석탄)와 원자력 에너지를 대신할 수 있는 재생에너지 개발이 필요하다. 그중 가장 유망한 것이 태양 에너지이다. 이를 실천하기 위해서 교회에서부터 태양열 난방비를 설치하고, 건물의 에너지 효율을 높이고 단열성이 떨어지는 벽면도 바꾸고, 창틀도 고밀도 단열창으로 바꾸는 등 에너지 절약에 노력을 기울여야 한

다. 이렇게 하면 우리가 사용하는 에너지의 50%까지도 줄일 수 있다. 지금부터라도 녹색 에너지로의 전환을 위한 녹색 교회의 꿈을 꾸며 태양에너지 활용을 실천해야 한다. 지난 11월 28일은 환경교실 마지막 강의가 있었다. 5주간의 강의는 참석한 모든 사람들에게 세상을 바라보는 새로운 시각을 가져다주었고 실생활 속에서 직접 실천해야 할 많은 과제들을 생각하게 했다. 마지막 실습은 밀랍초 만들기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가 없이 주신 자연의 섭리, 빛에 대한 소중함을 깨닫는 시간이었다.

구역소개

우리는 “똥똥 구역”입니다!



우리 구역을 한마디로 정의해 본다면 ‘똥똥구역’이다. 한 명 한 명 늘어 이제는 11명이 모여 예배를 드리는데 출석률은 거의 100%! 무지개축제때도, 수련회 때도, 주방봉사 때도, 똥똥 뭉치며 ‘모이기를 힘쓰는’ 구역이다. 또한 매달 두 번째 금요일에는 수서명화복지관에 가서 무의탁 노인을

위한 반찬봉사도 하고 있다. 믿음의 자매들의 간절한 기도로 위암말기를 뛰어넘는 기적을 맛보게 해준 김승자집사, 푸근한 마음으로 구역을 이끌고 있는 구역장과 동에 번쩍 서에 번쩍 열심히 교회 봉사를 하면서 알뜰살뜰 구역의 살림살이를 챙기는 권철이 있다. 우리 구역 식구들은 세상에서 힘들었던 문제들을 허심탄회하게 내어 놓고 주님이 주신 말씀 안에서 풀어가고 있다. 구역예배 날을 기다리는 우리 구역원들은 똥똥 잘 뭉치고 똥똥한 믿음을 향해 나아가는 한마음 식구들이다.

윤유정 (집사, 5-14)

서로에게 기대며 위로가 되어주는 구역

우리구역은 2005년 11월에 시작했다. 4명의 아줌마와 12개월 된 아기가 함께 시작한 모임이 어느덧 일년을 넘어섰다. 모이기 힘든 시기라는 30대 주부들을 묶어 주시며 우리가 30cup 셀 모임의 모델이 되길 원하셨던 목사님의 생각과는 달리 난 걱정이 많았다. 구역장으로 세워졌지만 성경지식도 부족하고 여러 가지 능력도 없는 나는 정말 자신이 없었다. 하지만 거절할 수 없었고 그저 주님의 인도하심대로 그 뜻을 받아들이고 모든 걸 맡겨야 했다. 이렇게 출발한 우리 셀은 나의 염려와는 달리 구역 식구들의 따뜻한 사랑으로 점점 풍성해져 감을 느끼고 있다. 지금은 식구도 더 늘었고 지난 1여 년 동안 출산한 가정, 임신한 가정 등 구역 안에서 이



런 저런 경사도 많았다. 우리 모두는 만나서 함께 웃고 함께 울며, 서로에게 기대고 서로에게 위로가 되어주는 시간들을 참으로 감사하고 소중하게 여기고 있다. 이제 막 첫걸음을 내딛은 새내기 모임이지만 앞으로 우리에게 주어질 많은 것들을 기대하며 도전해 보려고 한다. 이주영(집사, 8-4)